

대선후보 공약 통해 미래 경쟁력 키워야

**2022년 대선의 해
신 균형발전 원년으로**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은 앞으로의 국가 정책이 국민 모두의 동등한 편익을 위해 수립·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신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신속한 성장만을 지향하며, 이미 기반시설을 갖춘 수도권 등에 국가 재정과 민간 자본을 '집중'하는 '효율' 우선 정책을 펴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광복 후 76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만큼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 지역 간 불균형, 인구소멸위험지역 산재, 지역 역량 급감 등 그 부작용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표면적인 균등을 추구하며, 현상 유지적인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뛰어넘어 '분산'과 '균형'을 통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시급하다는 것이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의 공동된 의견이다.

부동산 문제, 청년 문제, 고령화 문제, 양극화 문제, 난개발 문제, 환경 문제 등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현안의 해결은 곧 올바른 국가균형발전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일보는 광주전남연구원과 6차례의 워크숍을 거쳐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 350만 시민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1> 낙후지역에 국가재정 집중

예비타당성조사와 정부부처 공모사업이 인구밀집지역, 잘 사는 지역,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를 발전적으로 해체해 낙후지역을 전국 평균으로 끌어올리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쟁력을 갖춘 곳은 민간 자본을, 미진한 곳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균형 발전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갖기 위해 그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정·조율하는 부처로 거듭나야 하며, 국가재정을 효율 관

소멸위기 지역 파격 지원 안하면
국가 전체가 엄청난 대가 치를 것

점에서만 재단하는 기획재정부를 제어할 수 있는 가칭 국가재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하는 등 정부부처 역시 균형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한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공공투자평가컨설팅센터장은 "현재 지역소멸위기에 있는 낙후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이 없다면 미래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대폭 증액, 지방교부세 강화 등 세심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 센터장이 지난 1967년부터 2018년까지 61년 동안 전국의 지방 재정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영남권에 64.1%가 집중된 반면, 충청권과 호남권에는 13~15% 안팎에 머물렀다. 1970년대 이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비롯한 중앙집권적 재정 운용으로, 처음부터 경부선을 중심으로 재원이 집중됐고, 이를 통해 산업·기반시설을 갖추면서 현재까지도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0여년 동안 수도권에 1382조원, 영남권 1052조원의 지방재정이 집행될 동안 호남권에는 600조원만이 배분됐다는 점에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호남권에 최장 30년간 국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균형발전특별회계 외에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연간 20조원 내외의 재원을 낙후지역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현재 수준에서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기계적인 균등과 수직적인 재정분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영남권 대 비영남권이 경제력과 재정력 면에서 큰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 사이의 수직적인 재정분권만 추진하면서 오히려 격차만 더 커졌다는 것이다. 국세나 지방세 모두 수도권에 50% 이상 세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는 것은 곧 수도권 재정 확충과 동일한 의미를 뜻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의 근원인 국세 수입은 대폭 감소하면서 이를 지원받는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등 농어촌지역인 도(道)는 예산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3년간 한시 보전하기로 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영구적으로 보전하는 등 제도의 손질이 시급하다.

오 센터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수도권은 자체 재원 중심, 비수도권은 국비 지원 중심의 예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맞춤형 재정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며 "비수도권의 경제력과 재정력을 수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재정조정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신재환 체조 도마 깜짝 金



2일 일본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도마 결선에서 신재환이 연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학선 이후 9년만에 체조 사상 두번째 올림픽 금메달 1000분의 1까지 동점 ... 난도점수 높아 극적으로 1위

신재환(23·제천시청)이 도쿄 올림픽 기계체조 도마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신재환은 2012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양학선 이후 9년 만에 한국 체조 사상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재환은 2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도마 결선에서 1, 2차 시기 평균 14.783점을 획득해 테니

스 아블라진(러시아올림픽위원회)과 동점을 이뤘다. 그러나 아블라진보다 난도 점수가 훨씬 높은 6.0점짜리 기술을 펼친 덕분에 신재환은 금메달을 차지했다.

신재환은 1차 시기에서 도마를 옆으로 짚고 세 바퀴 반을 비틀어 회전해 내리는 6.0점짜리 '요네 쿠라' 기술을 펼쳐 14.733점을 획득했다.

이어 2차 시기에서 난도는 1차 시기보다 낮았지만, 5.6점짜리 '여 2' 기술을 펼쳐 더 정확한 연기

로 1차 시기보다 높은 14.833점을 받아 전체 평균 점수도 올라갔다. 2차 시기를 더 잘 댔던 신재환은 양 팔을 펴고 주먹을 붙인 쥐며 금메달을 확인했다.

아블라진은 두 번 모두 난도 5.6점짜리 기술을 시도했고, 신재환과 1000분의 1점까지 같은 점수를 받았지만, 난도 점수에서 뒤져 은메달로 밀렸다.

국제체조연맹(FIG) 도마 랭킹 1위에 올라 개인 자격으로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신재환은 지난 7월 24일 단체전·종목별 예선에서 도마 1, 2차 시기 평균 14.866점을 획득해 전체 1위로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했다. 앞서 신재환은 곡절 끝에 개인 자격으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폭염에 뜨거워진 바다...함평 연안 수온 30.4도

남·서해 연안 고수온 현상

양식어류 관리에 주의해야

연일 계속되는 폭염 영향으로 전남 연안에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양식어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일 국립수산물관리원에 따르면 1일 0시~오후 1시 서해와 남해 주요 연안 표층 수온은 전날과 비교하면 대체로 소폭 상승했다.

전남 함평만 연안 수온은 전날 수온(30.1도)에 비해 0.3도 상승한 30.4도를 기록했다. 가파만

(여수 신월) 수온이 29.4도, 남해 강진 28.9도, 천수만(서산 창리)과 전남 완도 군외가 28.7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해역 표층 수온이 27도를 훌쩍 넘어섰다.

수산물관리원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하고 소조기 영향으로 전남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연안 표층 수온이 상승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남해 연안은 외해 고온 표층 해수가 연안으로 유입될 개연성이 높고 특히 전남 흑산도 주변 해역은 외해 고온 표층해수 영향으로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수산물관리원은 전했다.

고수온 특보가 내려진 해역 양식어업인은 관리

요령에 따라 양식장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조피볼락, 강도다리 등 고수온에 취약한 어류를 기르는 양식장에서는 어류 관리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수산물관리원은 당부했다.

이날 기준 전남 득량만과 함평만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다. 전남 가막만 내측 연안, 남해 서부 내만(진도 죽림리~완도 금당도), 남해 연안(진도 죽림리~부산 청사포),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일대(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측 종단~교맥도 동측 종단) 등지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돼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쫄쫄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쫄쫄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